"주공·토공 역할 재검토 필요"

李대통령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경쟁 필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물론 그렇게(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대폭 털어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주공의 경우 일반 분양사업은 제한하고 순수하게 임대아파트 사업만 전담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공과 토공의 기능을 슬림화한 뒤 두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짓지 않으니까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복지적 측면을 감안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국영기업도 각자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익을 내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원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정부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모르지만 민간기업이 하듯 어디 가서 공사 따러 다니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다. 건축사업이 침체일로에 있는데 어쩌면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면서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게 지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 보려다 미분양이 생기고 그게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며 주택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 주공·토공 역할 조정 곧 착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두 공사의 역할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문제점, 특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민간과 경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라 조만간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공사가 중대형주택까지 분양해 '장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갑 총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하겠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한 전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의 공천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진로를 모색했으나 지금은 내가 총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호남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또한 "당초 지역구였던 무안·신안은 김홍업 의원이 자리를 잡은 데다 과거 지역구였던 목포도 박지원 전 장관이 먼저 입지를 굳혀 공천 경쟁에 나서기 어려웠다"며 "모든 마음을 비우고 호남의 미래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광주 북 갑 출마설과 관련, 한 전 대표는 "구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가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나가 후배 정치인의 길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경선 승리 난망…힐러리 사퇴론 재등장

"본선 준비 시간 촉박" 민주당 안팎서 압박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중동 순방길에 나서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자금 모금에 매진하는 등 오는 11월 대선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반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힐러리에게 경선포기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

힐러리는 24일 현재 대의원 수에서 1천493명을 확보, 경쟁상대인 버락 오바마(1천628명) 상원의원에 뒤져 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힐러리가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66명의 대의원이 걸린, 남은 경선에서 60%의 득표율로 모조리 압승하고 미시간과 플로리다 경선을 재실시하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남은 경선 중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리건 등지에서는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하고 미시간, 플로리다 재투표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힐러리 진영도 대의원 수에서 오바마를 이기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힐러리 진영의 한 관계자는 "힐러리가 (대의원수에서) 오바마에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등하기는 어렵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힐러리의 경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힐러리 지지기반인 히스패닉 출신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최근 오바마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힐러리에게 일격을 가한 것. 그는 힐러리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오바마는 미국민과 우방을 단결시켜 미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올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오바마를 치켜세웠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움을 멈추고 매케인 후보와의 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힐러리의 경선포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내 유일한 히스패닉계 주지사인 리처드슨의 오바마 지지선언은 힐러리 지지기반으로 분류돼온 히스패닉계의 표심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경선구도가 힐러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힐러리 측은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각오다.

힐러리 진영은 지난 22일 온라인 기부금 모금에서 약진했으며 이것은 경선이 끝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성화 채화 23일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 인근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 채화 리허설에서 고대 여사제 복장을 한 그리스 배우 마리아 나프리오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성화에 불을 밝히고 있다. 올림픽 성화 채화식은 24일 정오(한국시각 오후 7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北 시리아 핵지원 부인, 북핵 협상 걸림돌"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왔지만 핵신고 문제에 진전이 없어 협상이 기로에 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 짓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북해 상호 관계정상화를 이룩한다는 기대를 해왔으나 이 같은 진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영변핵시설 불능화에 큰 진척이 이뤄진 가운데 북한이 결국 핵신고를 이행해 핵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북한의 시리아와의 핵협력 부인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은 핵시설 관련 기술 노하우와 일부 자재를 시리아에 제공해준다는 비밀합의를 했으며, 이스라엘이 지난해 9월 6일 공습으로 파괴한 시리아 내 시설은 핵원자로인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 공습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증거를 드러낼 경우 6자회담이 파국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야기했으나 미국 관리들은 최근 북한의 확산활동에 대한 확고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고위 정보 관리는 "우리의 의심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다. 다각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확신하고 있다"고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에 대해 '그런 협력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둔의 왕국' 부탄 민주주의 체제 도입 첫 총선 투표 개시

'은둔의 왕국'으로 불려온 부탄이 왕정 종식과 민주주의 체제 도입을 위한 첫 총선에 돌입했다.

부탄은 24일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각)부터 전국 18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후 5시 종료되며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전체 63만명의 국민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31만8천여명이 첫 총선에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하지만 왕족 일가와 불교 승려들은 선거 중립 차원에서 투표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는 국민민주당(PDP)과 부탄통일당(DPT) 등 부탄의 양대 정당 후보들이 참가하지만 정당간의 승패보다는 투표 그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월 선거를 통해 상원을 구성한 부탄은 이번에 하원 구성까지 마무리되면 100년 역사의 왕정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영국 유학파 출신의 지그메 케사르 왕추크 국왕도 "이번 총선은 2개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치르는 선거와 이를 통해 건설하는 민주주의는 여러 세대의 조상들이 희생을 통해 일궈낸 성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907년 현재의 세습왕조가 들어선 부탄은 국왕이 앞장서 민주화의 길을 택했다. /연합뉴스